

온라인서비스

정보화지표 개발추진

김 춘 석 / 사업관리실 산업진흥팀장

정보화지표란

일반적으로 정보란 어떤 목적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하며, 정보화란 각종 정보의 생산, 가공, 전달 및 이용이 의식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의 총체로서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을 배경으로 사회경제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에서 정보(지식)중심으로 이행되어 가고, 정보의 수집, 처리, 전달 및 이용에 있어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사회의 전 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것이다.

정보화지표(Information Indicator)란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지표의 하나로써 정보와 관련된 국가 전체 또는 어느 한 부분의 정보화 수준의 현실과 미래의 진전정도 및 변화속도를 올바르게 측정하여 체계적으로 가능한 총체적이고 함축적인 지수로 나타냄으로써 정보화의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즉, 정보화지표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회구조의 특성을 간단 명료하게 나타내고 그 변화를 총체적이고 함축적으로 나타내며 그 활용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는 분석방법 중의 하

나이다. 또한, 정보화지표는 적합한 측정항목의 선정에 대한 어려움과 측정방법, 측정시점 및 측정항목 등의 선정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같이 한 사회 내지 국가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여 지표로 나타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98년 국가정보화백서(한국전산원 발행)의 정보화 지표를 보면 정보인프라 수준을 측정하는 '정보실비지표', 정보인프라의 활용 수준을 측정하는 '정보이용지표 및 정보통신 관련 투자'와 인력 수준을 측정하는 '정보화지원지표'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정보화지표의 기능

첫째, 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사회구조, 기능 및 형태 등에 대한 현재의 수준을 비롯한 변화의 정도 및 방향 등을 제시하며 아울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미래 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계량적 목표를 제시해 준다.

특히 지역간의 비교가 가능하므로 구조적 분석에 따른 정보분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지침의 기능을 수반하게 된다.

둘째, 향후 전개될 새로운 정보환경에 대한 예측과 함께 이와 관련된 공공정책의 지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많은 정보화 추진 과제들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과제들간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정보화지표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개됨으로써 일종의 사회보고(social reporting)가 제도화되면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가치를 제고시키며 정보화 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보화와 그 목적인 국민 삶의 질 및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정보화의 직접적인 효과분석 외에 다른 지표들과의 관계 분석 등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 분석도 가능하게 해준다.

넷째, 사회발전 지표의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정보화지표가 포괄하는 정보 관련 항목별 지수는 물론이고 각 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발전과 연관된 목표설정 및 실적평가까지 가능하게 한다.

온라인서비스 정보화지표의 개념과 필요성

온라인서비스 정보화지표는 온라인서비스의 진전에 따른 정보화지표의 일부분으로서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개발된 사례는 없으나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가 시공을 초월한 사이버공간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동이 가능한 가상사회(Virtual Commun

ity)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PC통신은 가입자수, 인터넷은 이용자수를 기초로 각종 통계작업을 하고 있으나 PC통신서비스가 인터넷기반의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향후 PC통신과 인터넷의 구분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정보통신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외형상의 가입자수 보다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수 및 이용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 정보화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현 실태

각 PC통신 인터넷 사업자는 유료가입자에 연체가입자 및 유보가입자 등을 포함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1인 1 ID갖기 운동이나 1000만 ID 보급사업 등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가입자 부풀리기식 유치전략으로 인해 건전한 경쟁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상적인 이용요금을 납부한 가입자수는 사업자가 발표한 가입자와 비교할 때 44.1% 수준에 불과하고 전자우편(E-mail)이 가능한 가입자수도 80.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발표 유료가입자와 실제 이용자 현황>

(단위: 천개, '99.3월 기준)

사업자 발표 ID	이용요금 청구 ID
5,506(100%)	2,429(44.1%)
전자우편 가능 ID	매출액기준 유료 ID(추정)
5,506(100%)	2,429(44.1%)

*'99.4월 014XY 식별번호 이용현황: 이용자수 250만명, 1인당 납부액:5,500원

6월말까지 정부가 정보통신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지표와 사업가가 마케팅 측면이나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표
(PC통신의 이용목적, 이용시간, 이용서비스, 이용요금 분포,
이용자 불만사항 및 소통품질 현황 등)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정보화지표 초안을 마련하였다.

정보화지표 개발 현황

지난 6.10일 우리 협회는 정부·업계·연구계·학계의 전문가 16명과 함께 온라인서비스 정보화지표 개발전담반(표 참조)을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 지표개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개발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6월말까지 정부가 정보통신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지표(유료가입자수, 이용자수, 매출액, 당기손익, IP/DB 및 시스템 현황 등)와 사업가가 마케팅 측면이나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지표(PC통신의 이용목적, 이용시간, 이용서비스, 이용요금 분포, 이용자 불만사항 및 소통품질 현황 등)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정보화지표 초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표 개발과 병행하여 그간 정부에서 발표하던 PC통신사업자의 이용자수 현황 등을 포함한 각종 통계를 7월말부터 협회에서 수집 분석하여 자체 홈페이지(www.kait.or.kr)에 매월 공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향후 추진계획

'99년 7월 정보화지표(초안)에 대한 전담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보화지표(안)을 마련하고 전담반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보완한 후 가능한 8월중으로 사업자 의견수

렴을 하는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해 '99년말까지 정보화지표의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정보화지표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국내 SITE의 Pageview 등을 공인해 주기 위해 미국의 통계 관련 인증기관인 ABC 산하 ABVS 기관과 성격이 비슷한 "온라인서비스통계 인증센터(가칭)"의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

*정보화지표 전담반

정 부	업 체 명	성명/ 직급
정 부	정부통신부	오민영 사무관
		윤 용 사무관
업 계	한국 PC 통신	정 훈 과 장
	데이콤	안종천 부 장
	나우콤	심성보 부 장
	SK텔레콤	성재학 과 장
	삼성SDS	왕대열 팀 장
	한국통신	송우찬 부 장
	아이네트	이동수 실 장
	현대정보기술	노용건 부 장
	한솔텔레콤	민병래 부 장
	LG 인터넷	이민수 과 장
학 계	서강대	남기찬 교 수
연구계	한국전산원	김현곤 박 사
	KISDI	초성은 박 사
협 회	한국정보유통협회	강철구 박 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승형 실 장 김춘석 팀 장